

‘놀면 뭐하니’ 측 “씩씩리 활동 수익, 불우이웃 위해 기부”

약 2달 남짓동안 하나되는 모습담은 비공식 버전 MV공개

틱톡 ‘다시 여기 바닷가’ 안무 챌린지 이벤트 뜨거운 반응

‘씩씩리 유두래곤·린다G·비룡의 데뷔곡 ‘다시 여기 바닷가’에 대한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이 보답하고자 비공식 버전의 즉흥 MV를 공개했다.

또한 ‘씩씩리’의 앨범과 활동에 대한 수익을 불우 이웃 돕기에 기부하는 의미 깊은 행보를 이어간다.

지난 20일 ‘놀면 뭐하니?’ (연출 김태호 김윤집 장우성 왕종석)의 공식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 공개된 ‘다시 여기 바닷가’ 비공식 버전의 즉흥 MV는 ‘씩씩리’의 앨범 재킷 촬영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즉흥적으로 함께 즐기는 멤버들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이를 재편집해 색다른 MV가 탄생했다.

유두래곤, 린다G, 비룡은 현장에서 마치 실제 MV를 찍는 듯 어김없는 센터 열정과 찰떡 호흡을 보여줬다.

‘놀면 뭐하니?’를 통해 다시 만난 세 사람이 약 2달 남짓한 시간 동안 점차 ‘씩씩리’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과 몽글한 노래 가사가 어우러져 오는 25일 공개될 공식 MV와는 또다른 감성을 전해준다.

또한 지난 11일 공개된 커버곡 ‘여름 안에서’를 비롯해 25일 공개될 ‘그 여름을 틀어줘’, 예약 판매를 시작할 피지컬 앨범,

8월 1일 공개될 멤버들의 솔로곡 등 ‘씩씩리’의 음원 및 앨범을 비롯한 활동 수익은 불우 이웃 돕기에 기부될 예정으로 뜻깊은 행보를 이어간다.

그런가 하면 MBC ‘놀면 뭐하니?’의 공식 유튜브를 통해 방송과는 다른 ‘씩씩리’의 모습이 담긴 콘텐츠들도 공개하고 있다.

‘씩씩리’의 ‘섹시미’를 발산한 ‘살수차 감독캠 풀버전’ 영상은 현재 208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틱톡과 함께 진행되는 ‘다시 여기 바닷가’ 안무 챌린지 이벤트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대망의 25일 데뷔 무대를 앞두고 ‘씩씩리’를 함께 응원해준 팬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데뷔 무대를 단 4일 앞두고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한편 ‘씩씩리 유두래곤·린다G·비룡은



25일 데뷔곡 ‘다시 여기 바닷가’로 ‘쇼! 음악 중심’ 무대에 오른다. 1990년대~2000년대의 추억을 ‘씩씩리’

의 감성을 담은 뉴트로 무대로 꾸미며, 2020년 더욱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사해줄 예정이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임수향, ‘마성의 첫사랑’ 변신

“오예지 캐릭터 200% 싱크로율 확신”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임수향의 첫 촬영 스틸컷이 공개됐다.

MBC 새 수목 미니시리즈 ‘내가 가장 예뻤을 때’ (극본 조현경/ 연출 오경훈 송연화) 측은 21일 임수향의 첫 촬영 스틸컷을 공개했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는 한 여자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된 형제와 알 수 없는 운명에 갇혀버린 한 여자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다.

한 여자를 동시에 사랑한 형제의 위태로

운 로맨스와 그릇된 욕망, 팽팽한 긴장감 속 잔혹한 운명의 굴레를 그린다.

임수향은 극 중 서한(지수 분)의 첫사랑이자 세라믹 아티스트 오예지 역을 맡았다.

오예지는 평범한 행복을 꿈꾸지만, 형제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기혹한 운명의 인물이다.

이날 공개된 스틸컷에는 ‘청순 교생’으로 분한 임수향의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임수향은 학생들의 워너비답게 사

랑스러운 꽃미모로 보는 이의 시선을 강탈한다. 해사한 미소로 미술 수업에 집중하는가 하면, 학생들과의 만남에 앞서 한껏 긴장된 표정으로 첫 담임이 된 오예지의 설렘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청초한 미모와 여름 햇살 미소는 모든 이의 첫사랑을 절로 떠올리게 한다.

임수향은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측을 통해 “오예지는 보통의 삶을 꿈꾸는 세라믹 아티스트다”라며 “어둡고 불우한 부분도 많지만 이를 밝고 명랑하게 이겨내려고 하는 사랑스럽고 발랄하며 여성스럽고 순수한 친구”라고 캐릭터를 설명했다.

또한 “서한과 서진(하석진 분) 사이에서 멜로의 중심이 되는 인물인 만큼 세 사람의 케미를 기대해 달라”고 말해 극 중 펼쳐질 세 사람의 케미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어 “모든 배우와 스태프가 무더운 여름, 좋은 그림과 힐링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안방극장을 찾아가기 위해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 ‘내가 가장 예뻤을 때’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제작진은 “임수향은 촬영 내내 오예지 되기에 전심전력을 다 하고 있다”라며 “촬영을 진행할수록 임수향은 오예지 캐릭터와 200% 싱크로율이라는 확신이 든다.

1년 만에 안방극장을 찾은 임수향의 활약을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한편 ‘내가 가장 예뻤을 때’는 ‘십시일반’ 후속으로 오는 8월 19일 오후 9시 30분 처음 방송된다.

블랙핑크, 4주연속 케이팝 레이더 주간차트 1위

지난 1년간 총 조회수 51억 건

그들 블랙핑크가 또다시 주간 케이팝 레이더 1위를 달성하며 4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는 케이팝 레이더 2020년 29주 차 집계 기간(7월12일~19일) 동안 3917만 뷰를 기록해 4주 연속으로 케이팝 레이더 유튜브 조회수 차트 1위에 올랐다.

케이팝 레이더 측은 이러한 블랙핑크 신 기록 행진의 원인을 “동남아를 비롯한 브라질 등의 해외 인기 증가”로 꼽았다. 지난해 케이팝 레이더가 발표한 세계 지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블랙핑크에 발생한 조회수는 총 46억 건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지난 1년간의 블랙핑크에게서 발생한 총 조회수는 전년 대비 약 110% 증가한 51억 건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케이팝 레이더는 “지난 1년 사이 브라질에서 발생한 조회수가 1억 9200만에서 3억 3600만으로 약 1.8배 크게 상승한 것이 총 조회수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브라질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블랙핑크 유튜브 조회수 TOP5 국가에 새롭게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와 일본에서도 각각 전년 대비 8000만, 5000만 뷰씩 증가해, 총 조회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또 이어 29주 차 케이팝 레이더 주간 유튜브 조회수 차트에는 여자친구는 ‘애플’(Apple)이 1679만 뷰를 기록하며 2위로 새롭게 진입했다.

이외에도 블랙핑크의 ‘퀵 디스 러브’(1239만 뷰)를 비롯해 SF9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Summer Breeze)(1045만 뷰), 블랙핑크의 ‘뚜두뚜두’(DDU-DU DDU-DU)(1036만 뷰), 싸이의 ‘강남스타일’(1022만 뷰),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869만 뷰), 레드벨벳-아이린&슬기의 ‘몬스터’(Monster)(836만 뷰), 블랙핑크의 ‘불바야’(719만 뷰), 트와이스의 ‘모어 앤 모어’(MORE & MORE)(674만 뷰) 등이 주간 케이팝 레이더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전소미, 美 레이블 인터스코프와 계약 체결

전소미가 세계 최대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대표 레이블인 인터스코프 레코드와 계약을 체결했다.

21일 전소미의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은 유니버설 뮤직 그룹(Universal Music Group) 신하 레이블 인터스코프(Interscope)와 계약 체결 소식을 밝혔다.

유니버설 뮤직 그룹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뮤직 비즈니스 1위 기업이다.

더블랙레이블이 함께할 인터스코프는 유니버설의 대표 레이블로 닥터 드레, 에미넴, 마론5, 마돈나, 레이디가가, 셀레나 고메즈, 빌리 아일리시 등 힙합, EDM, 록, 팝스타까지 아우른다. 국내에서는 블랙핑크가 인터스코프와 계약을

맺고 미국, 남미,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로써 전소미는 데뷔 1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쟁쟁한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특별한 현지 활동 없이도 유튜브를 통해 증명된 글로벌 영향력을 미국에서 먼저 알아본 셈.

인터스코프 측은 “소미는 그만의 독창적이고 섬세한 스타일로 팝 음악에 대해 접근하며, 차세대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될 준비를 마쳤다”라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Y&G엔터테인먼트, 테디, 더블랙레이블과 맺어온 관계가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 같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민석 “군생활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배우 김민석이 전역 인사를 전했다. 김민석은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충성, 군 생활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팬여러분들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선물도 정말 잘 받았습니”라고 인사했다.

이어 그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스크는 사진 찍을 때만 잠시 내렸습니다.) #전역 #끝났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김민석이 팬들이 준비한 응원 광고판 앞에서 경례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팬들은 ‘김민석 웰컴 백’이라며 전역을 축하했다.

한편 김민석은 20일 육군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무리,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지난 2018년 12월 입대한 김민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에 따라 지난 5일 군복무 중 마지막 휴가를 나온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역했다.

‘비밀의 숲2’ 전해진x최무성, 압도적 카리스마 열연 예고

tvN 새 토일드라마...내부 비밀 추적극 내달 중 첫 방송

‘비밀의 숲2’가 수사권 논쟁의 대척점에서 첨예한 대립을 펼칠 경찰 전해진과 검사 최무성의 첫 스틸컷이 공개됐다.

tvN 새 토일드라마 ‘비밀의 숲2’ (극본 이수연/ 연출 박현석) 측은 21일 여성 최초 경찰청 정보부장 최빛(전해진 분)과 사법제단 부장검사 우태하(최무성 분)의 모습을 담은 스틸컷을 공개했다.

‘비밀의 숲2’는 검경수사권 조정 최전선의 대척점에서 다시 만난 고독한 검사 황시목(조승우 분)과 행동과 형사한여진(배두나 분)이 은폐된 사건들의 진실로 다가가는 내부 비밀 추적극이다.

전해진은 극 중 여성 최초 경찰청 정보부장 최빛 역을 맡아 경찰의 오랜 숙원사업과도 같은 수사권 대업을 이끈다.

검찰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내부의 목소리가 날로 커져만 가는 가운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최빛은 경찰의 수사권 쟁취를 위해 권모술수도 마다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개된 스틸컷 속 카리스마 가득한 눈빛에서도 이번이야말로 경찰을 검찰로부터 확실히 갈라 놓고자 하는 야망이 드러난다.

그가 여성 최초이자 유일하게 정보국 부장까지 오를 수 있던 데는 출세 지향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면모가 큰 원동력이 되어준 바, 지략이 최빛이 최빛의 바람에 올라탄 와중에 경찰의 수사권을 쟁취해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무성은 최빛과 대적하게 될 형사제단 부장검사 우태하 역을 맡는다.

지방지청에서 시작해 남들보다 빠르게 수도권에 입성한 우태하는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노른자위 요직만 골라 섭렵해 온 엘리트 귀족 검사다.

현재는 대검에 깃발을 꽂아 웅만한 지방검찰청 지검장보다 입김이 센 대검 형사법제단 단장직에 자리하고 있다.

우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최전방에서 그 동안 유지해온 검찰의 고유한 수사권 사수에 나선다. ‘비밀의 숲2’ 제작진은 “이번 시즌에



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사안을 핵심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최빛과 우태하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라며 “그런데 전해진과 최무성의 캐스팅이 신의 한 수라 여겨질 정도로 두 배우가 검경의 수장으로 서 존재감이 확실한 연기를 보여줬다.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비밀의 숲2’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후속으로 오는 8월 중 처음 방송된다.